



이현정 소장의 이제는 다문화 시대 북한동포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

요즘 다문화란 말 많이 듣는다. 각종 방송·언론마다 다문화라는 타이틀도 프로그램도 많아졌다. 어엿한 사회적 용어가 된 셈이다. 다문화사회로 급진전되면서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낯선 이주민들과 함께 기존의 삶의 모습과 양태들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거기에서 오는 사회적 진단과 연구. 그리고 과제를 모색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용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다문화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다문화가 떠오르면서 다문화란 말 자체에 대해 이런 저런 조연과 목소리들이 생겨났다. 그 중의 하나로 '다문화는 또 다른 차별이다'라는 말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다문화공생, 복합문화, 이중문화, 크로스문화, 모자이크문화, 등 국가마다 편이상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있다. 우리도 편리하고 어디에서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선택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란 용어는 교육 당국이 2006년

부터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요즘 다문화 용어 자체에 대한 논란을 보고, 본질은 보지 않고 겉 표면에만 깎달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마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은 안보고 손가락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설왕설래는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기에 충분하다. 어떤 것이든 갑작스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누구나 들어서 알 수 있는 용어도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적용이 되고 완전히 우리사회에 흡수되고 나면 그동안 차용해서 사용했던 용어도 필요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바쁘다. 국민의식과 정부정책, 사회통합적 노력이 보다 더 절실하다.

굳이 법률적인 정의를 따져보자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다문화가족을 결혼 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뤄진 가족, 귀화하기를 받은 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법에서 정의한 이외의 다문화가족이 많고,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문화란 공통분모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다른 용어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말에 매달려서 기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같다.

말이나 또 다른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완전하지 않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 마치 탈북민의 사례에 서처럼 말이다. 북한동포라는 말이 안 좋다고 새터민으로 순화해서 달리 바꿔 불렀다가 오히려 더 차별화 시킨다는 반발에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으로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

말이라는 것은 한마디 가지고도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필자 또한 용어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 그르다 따지기에는 현실은 그리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한국어표준어에 실려 있는 용어

를 그대로 현실에서 쓰지 않을 때도 많다. 온 국민이 즐겨 사용하는 말은 표준어도 국어사전도 그늘에 숨는 법이다. 짜장면이 한국표준어발음법에 의거해 1986년에 '자장면'이 되었다가 올 8월 말에 드디어 제 이름을 찾아 '짜장면'이 되었다. 이렇듯 전 국민이 즐겨 사용하고 편히 소통할 수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현실감에 맞다.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그 전에는 '단문화'였다는 말이나 하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다. 즉 그 전엔 단문화였다는 반증이 되다니 오히려 거부반응이 된다는 것도 쉽게 이해는 간다.

그러나 아직은 단일민족,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반다문화주의자가 많고, 완전한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책에서도 완전하지 못하다. 아직 우리는 세계화, 다문화사회로 가는 초입단계라 이것 역시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본다. 다문화란 용어가 필요 없어질 만큼 우리에게 다문화가 자연스러워지면 좋겠다.

이은정 기자의 뽀뽀(Fun Fun)한 레시피

버섯 잡채

추석이 지나자 제법 선선한 날씨가 이어진다. 얼마 전까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하루가 다르게 바람이 찬 기운이 더해진다. 완연한 가을이다.

가을에는 당연지사 단풍놀이 빼놓을 수 없다. 등산을 그치지 즐기지 않는 이들도 가을이 되면 한 번쯤 산행을 결심한다. 단풍이 진 가을 산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가을 산행의 백미는 따로 있다.

가을이 되면 산에는 숨은 보물들이 넘쳐난다. 특히 산 곳곳에 숨어있는 야생 버섯들은 가을철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보석이다. 가을에 나는 야생 식용 버섯들은 채취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시중에서는 고가에 판매돼, 버섯을 좋아하는 마니아들에게는 더욱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하다.

늦가을에 나는 버섯들은 의외로 독버

섯이 많이 없고, 맛과 영양에서도 만점이다. 버섯 중에서도 진미로 꼽히는 송이버섯은 맛이 향기롭고 풍미가 뛰어나다. <동의보감>에서도 송이버섯은 깊은 산속 소나무 밑에서 그 기운을 받고 자라 버섯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말했다.

송이버섯 못지않게 밤버섯, 자연산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능이버섯 등도 귀한 버섯들 중 하나다.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습기가 많아 버섯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하지만 항상 과유불급(過猶不及)을 명심해야 하는 법. 야생버섯이 많이 자란 만큼, 독버섯 또한 조심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부 독버섯은 식용버섯과 모양이나 색깔도 매우 비슷해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버섯을 따기 위해 무작정 산행을 감행하는 것은 산행 초보자들에게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안전에도 유념해야 함을 잊지말자.



알고가기 야생 식용버섯이 아니더라도 버섯은 시중에서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돼지고기와 함께 섭취할 때 돼지고기의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해준다. 또한 열량이 낮고 섬유소가 많아 비만에방해도 좋다. 버섯은 종류에 따라 구입요령이 다르지만 대체로 상처가 없고 조직이 단단한 것이 좋다. 송이버섯의 경우 조리 시 너무 씻으면 특유의 향이 달아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 하세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밤버섯 등 각 20g, 파프리카 20g, 미나리 10g, 들기름, 들깨가루, 소금 약간 (버섯은 기호와 상황에 따라 조절해도 좋다)

음식 만들기

1. 버섯은 손질한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낸다.
2. 파프리카와 미나리는 적당한 크기로 채 썰어 놓는다.
3. 달궈진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버섯과 야채를 넣고 살짝 볶아 낸 후 소금으로 간을 한다.
4. ③에 들깨가루를 버무리 뒤, 접시에 놓는다.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부처님은 신과 가장 친근한 존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다고 한다. 아마 예수님은 인간의 생을 마친 후 분명 천당에서 태어나셨을 것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에는 신이 한 분밖에 없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천계에는 수많은 신들이 모여서 알콩 달콩 재미있게 살아간다. 하지만 신의 삶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도 부처님이다. 부처님도 한때는 천계의 여러 신들 중 한 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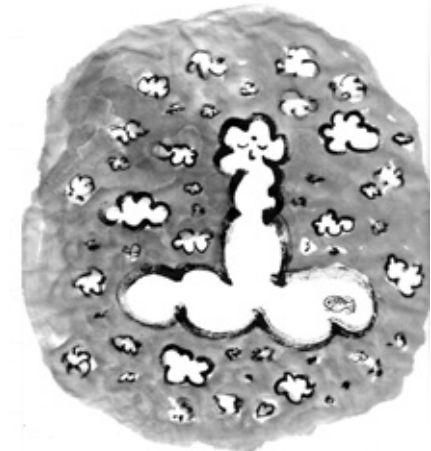
천계의 신(神)이었던 시절의 부처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다. 그 중에서도 누구나 이상적인 곳으로 생각하는 천계에 대한 지식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천계와 천신들을 수시로 적재적소에 가가 막하게 활용한다. 이처럼 수많은 신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종교도 드물 정도이다.

사실 부처님이 천신들의 속성과 천계의 환경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데에

는 과거 그곳에서 오래도록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실제 경험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인 것이다. 부처님이 천계에 태어났던 것은 인간 시절에 지었던 복덕 덕분이었다. 한번 천계에 태어난 이후 크게 탈선 및 타락을 하지 않았던 부처님은 그 후로도 천계와 지상을 오고가며 몇 번의 생을 거듭한다. 그 생 중에 제석천왕과 범천왕 등의 지위를 두루 누렸고 그 사이사이에 인간 세상에서 크고 작은 왕이나 바라문 등으로 태어나기도 하였다.

이렇게 온갖 생을 살면서 공덕과 복덕을 가득 지어 10지 보살에 이른 후, 부처님은 드디어 천신의 지위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받아서 부처가 될 것을 결심한다.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과거 신이었던 시절에도 몹시 과감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목심이 있었다. 한번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누구도 그 생각을 바꿀 수 없었다. 이런 성격은 천신의 지위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받아 부처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과정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천계의 '신'이느



천계의 신

삼베=김영수

닷없이 고통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 바른 가르침을 펼칠 것을 장래 희망으로 정하고 '인간'의 몸을 받기로 결심을 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또한 다른 신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한 과감한 행동이었다.

불교는 신(神)과 가장 친한 종교 부처님이 서원을 세우고 인간 세상에 내

려갈 것을 결심하자 처음에 천계의 신들은 눈물을 흘리며 만류한다. 하지만 결국엔 부처님의 의지를 바꾸지 못하고 응원하기 시작한다. 부처님을 응원하기로 뜻을 모은 천계의 권속들이야말로 평생에 걸쳐 부처님의 보호자이자 친구이며 또한 제자이면서 동시에 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부처님이 과거에 천계의 신이었고, 다른 신들과 매우 친한 사이였으며 그들의 전폭적인 응원을 받으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점에서 불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신(神)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친근하다고 할 수 있다. 타 종교와 달리 불교는 신에 대해서도 활짝 열려있다. 경전 속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속에서 수많은 신들이 등장한다. 신(神)이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잘 드러나 있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츰컬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농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독이, 곰팡이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선의 비투과성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용)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엔 냄새가 사라집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